



‘탱크’ 최경주 스킨스 게임도 정복

최경주가 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디언 웰즈 소재 인디언 웰즈 골프 리조트에서 벌어진 PGA LG 스킨스 게임 이틀째 경기 10번째 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8번홀 27만달러 버디 성공... 짜릿한 역전

총상금 41만5천달러 차지
상금 20% 자선 재단 기부
한국선수 첫 스킨스 우승

PGA LG 스킨스게임

‘탱크’ 최경주(38·나이키골프)가 출범 1년을 맞은 최경주 자선재단에 두둑한 기금을 보냈다.

최경주는 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디언웰스의 인디언웰스골프장 샬레브리티코스(파72·7천88야드)에서 열린 LG스킨스게임 최종 라운드18번홀에서 27만달러 짜리 버디 퍼트를 잡아넣으며 모두 41만5천달러를 차지, 우승 컵을 들어 올렸다.

아놀드 파머, 잭 니클러스, 톰 왓슨, 개리 플레이어, 프레드 커플스, 그렉 노먼, 타이거 우즈, 비제이 싱 등 당대 최고의 선수들이 출전해온 이 대회에 한국 선수로는 처음 초청장을 받은 최경주는 한국인 첫 우승이라는 새로운 금자탑을 쌓았다. 이 대회 첫 출전 선수로는 역대 세번째로 많은 상금을 따낸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첫날 9개홀에서 7만5천달러를 벌여 선두에 나섰던 최경주는 25만달러가 걸린 10번홀(파4)에서 버디를 때린 에임스에 게 뒤져 2위로 밀려났다. 이어 필 미켈슨(미국)이 13번홀(파



최경주가 PGA LG 스킨스 게임 우승 트로피를 들고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4)에서 두번째샷을 홀 옆 한뼘 거리에 붙이며 17만달러를 가져가면서 3위로 내려 앉았다.

그러나 14번홀(파5)에서 최경주는 그림같은 이글 샷으로 우승의 밑그림을 그렸다. 322야드가 날아가는 초장타 드라이브샷에 이어 197야드를 남기고 연타 너머 홀을 향해 곧바로 두번째샷을 때린 것이 1m 이글 기회가 됐다.

7만달러를 차지한 최경주는 대회 타이틀 스폰서인 LG전

자가 내건 푸짐한 이글 상품에 입이 벌어졌다. LCD TV와 홈시어터 오디오 시스템, LCD 컴퓨터 모니터, 블루레이 플레이어, 최고급 냉장고와 렌지, 식기 세척기, 그리고 최신식 스마트폰 1대를 포함한 휴대용 3대 등을 선물로 받았다.

하지만 16번홀(파3)에서 미디어이트가 버디를 잡아내며 14만달러를 가져가자 에임스(25만달러), 미켈슨(19만5천달러), 최경주(14만5천달러), 미디어이트(14만달러) 등 네명 모두 17번홀과 18번홀에 걸린 27만달러를 차지하면 우승이 가능한 상황이 됐다. 17번홀(파4)에서 최경주는 4m 버디 퍼트를 실패했지만 미디어이트와 에임스가 나란히 버디 퍼트를 넣어 7만달러의 스킨은 20만달러가 걸린 18번홀(파4)로 넘어갔다.

18번홀에서 네명 모두 두번째샷을 홀 4m 이내에 떨어뜨려 연결이 예상됐다. 미디어이트가 4m 거리에서 맨먼저 시도한 버디 퍼트는 빗나갔고 다음은 최경주 차례. 3.3m 짜리 버디 퍼트는 살짝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어지면서 홀 안으로 떨어졌다.

미켈슨과 에임스는 최경주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 버디 퍼트에 실패해 최경주는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약정에 따라 최경주는 상금의 20%를 출범 1주년을 맞은 최경주자선 재단에 내놓았다.

대회 3연패를 노리던 에임스는 25만달러를 받아 2위에 올랐고 미켈슨은 19만5천달러로 3위, 그리고 미디어이트는 14번홀에서 딱 한개의 스킨을 따내면서 14만달러를 챙겼다.

연합뉴스



KIA 윤석민·이용규·김원섭

“내가 ‘황금장갑’ 주인”

KBO 골든글러브 후보 43명 발표

올해 프로야구에서 포지션별로 가장 뛰어난 활약을 벌인 선수를 가리는 골든글러브 후보자 명단이 발표됐다. KIA 타이거즈에서는 윤석민(투수·왼쪽)과 이용규(가운데)·김원섭(외야수·오른쪽)이 명단에 올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일 올 시즌 KBO에 등록된 543명의 선수 가운데 투수부터 지명타자까지 8개 포지션에서 43명의 선수를 골든글러브 후보로 확정, 발표했다.

포지션별로는 올해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된 김광현(SK)과 ‘평균 자책점율’ 윤석민(KIA), 류현진(한화) 등이 경쟁하는 투수 부문과 이대호(롯데), 김동주(한화) 등이 나선 3루수 부문이 나란히 6명의 후보를 올려 가장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3명을 뽑는 외야수 부문에는 이용규(KIA), 김현수(두산)와 가르시아(롯데)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고, 1루수 부문은 지난해 수상자인 이대호가 3루로 옮겨가면서 ‘홀런왕’ 김태균(한화)의 무월입상이 점쳐진다.

박경완(SK)과 강민호(롯데), 진갑용(삼성)이 후보로 뽑힌 포수 부문과 정근우(SK)와 고영민(두산), 조성환(롯데)이 경쟁하는 2루수 부문은 치열한 3파전이 예상된다.

한대화(삼성 수석코치)와 함께 통

산 최다 골든글러브 타이 기록(8회)을 가진 양준혁(삼성)은 지명타자 후보로 나서 통산 최다 수상 기록에 도전하고, 유격수 부문에서는 김재박(LG 쪽)과 이용규(가운데)·김원섭(외야수)이 명단에 올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일 올 시즌 KBO에 등록된 543명의 선수 가운데 투수부터 지명타자까지 8개 포지션에서 43명의 선수를 골든글러브 후보로 확정, 발표했다.

포지션별로는 올해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된 김광현(SK)과 ‘평균 자책점율’ 윤석민(KIA), 류현진(한화) 등이 경쟁하는 투수 부문과 이대호(롯데), 김동주(한화) 등이 나선 3루수 부문이 나란히 6명의 후보를 올려 가장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3명을 뽑는 외야수 부문에는 이용규(KIA), 김현수(두산)와 가르시아(롯데)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고, 1루수 부문은 지난해 수상자인 이대호가 3루로 옮겨가면서 ‘홀런왕’ 김태균(한화)의 무월입상이 점쳐진다.

한대화(삼성 수석코치)와 함께 통

김여울기자 wool@연합뉴스



“이승엽 등 해외파 전원 뺀다”

김인식 WBC 감독 1차 엔트리 45명 발표

발위된 대부분이 상황이 어떻게 변할 지 모르니 일단 넣어두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 백차승은 “선수 본인과 연락이 안돼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WBC는 여는 국제 대회와 달리 부모의 국적으로도 될 수 있는 대회”라고 설명한 뒤 “내일쯤이면 연락이 될 것 같다. 태어난 곳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좋은 방향으로 (여론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동균 기술위원장은 올시즌 팀이 없어 한 경기도 실전에 나서지 못했던 김병현을 1차 명단에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기량이 있는 선수 위주로 뽑았다”고 전했다.

45명 가운데 투수는 박찬호(LA 다저스)

와 임창용, 이혜천(이상 야쿠르트), 김광현(SK) 등 19명이 뽑혔다. 포수는 박경완(SK) 등 4명, 내야수는 13명, 외야수는 추신수(클리블랜드)와 이병규(주니치) 등을 포함해 9명이다. 지난 8월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한 대표선수 중에는 권혁(삼성)과 김민재(한화)를 제외하고는 모두 포함됐다.

WBC조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최종 엔트리 마감은 내년 2월22일까지지만 KBO는 26일 다시 기술위원회를 열고 최종 28명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인식 감독은 “최종 엔트리를 일찍 결정해야 선수들이 알아서 준비를 할 것”이라고 설명한 뒤 “만약 부상 등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WBC 1차 엔트리 45명 명단

▲투수(19명) = 김광현 정재현 이승호(이상 SK) 류현진(한화) 장원삼 마일영(히어로즈) 봉중근(LG) 손민한 송승준(이상 롯데) 윤석민 서재응(이상 KIA) 오승환 정현욱(삼성) 이재우(두산) 박찬호(LA 다저스) 백차승(샌디에이고) 임창용 이혜천(이상 야쿠르트) 김병현(전 퍼츠버그) ▲포수(4명) = 강민호(롯데) 진갑용(삼성) 박경완(SK) 조인성(LG) ▲내야수(13명) = 이대호 조성환 박기혁(이상 롯데) 정근우 나주환 최정(이상 SK) 박진만(삼성) 고영민 김동주 손시현(이상 두산) 김태균 이범호(이상 한화) 이승엽(요미우리) ▲외야수(9명) = 이종욱 김현수(이상 두산) 이택근(히어로즈) 이진영(LG) 이용규(KIA) 박재홍(SK) 김주찬(롯데) 추신수(클리블랜드) 이병규(주니치)

연합뉴스